KARDIAN
카 디 안 자 산 운 용

판매회사 내부직원용

카디안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6-563호(2026.11.10 ~ 2027.01.31)

카디안 퇴직연금 업종일등 4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026년 10월말 기준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국내 국공채를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채권증권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주식증권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40% 이하를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전략

카디안 퇴직연금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

이 투자신탁은 국내 국공채 등을 주된 투자 대상 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공채 등에 투자하여 신용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이자수익과 함께 투자한 채권의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추구합니다.
- 국내외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비교지수 대비 펀드의 목표 듀레이션을 결정한 후, 국채와 공사채 및 회사채 또는 단기채권과 장기채권 간의 상대가치를 분석하여 섹터 및 수익율 곡선상 자산배분 비율을 결정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선별적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의 확보를 추구합니다.
- 수익률 제고와 신용등급 상승에 따른 자본 이득 추구를 위하여 회사채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회사채 등에 대한 투자는 투자 유니버스 내에서 신용도 개선이 예상되거나 펀더멘탈 대비 저평가 되어 있는 섹터 또는 종목 위주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카디안 퇴직연금업종일등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대형 우량주 중심의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 철저하게 분업화 된 업종별 담당 애널리스트에 의한 실사 중심의 리서치와 상향식(Bottom-up)투자 방식의 기본적 분석에 기초하여 투자대상 종목을 선정합니다.
- 상향식(Bottom-up)투자방식에 근거한 일관된 투자 프로세스를 유지하기 위해 모델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운용합니다.
- 기본적 분석과 함께 하향식(Top-down)투자방식을 일부 적용하여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자산배분 전략 보다는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선정에 역량 집중합니다.
- 단기적인 시황관에 근거한 적극적인 주식편입 비율의 조정은 지양하며, 중대한 시장 모멘텀 변화시 주식편입비중을 조절합니다.
- 리스크관리팀에서 금융공학기법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구성 프로세스 확립, 위험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제공 및 운용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운용업무 및 포트폴리오 위험관리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맞껠???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1,278억 원

-채권모투자신탁 1,007억 원

-주식모투자신탁 863억 원

펀드유형 증권(혼합채권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 채권편입비: 60% 이상
- 주식편입비: 40% 이하

설정일

(운용펀드 : 2006년 01월 05일)

- 클래스 C : 2011년 11월 01일
- 클래스 C-E : 2017년 08월 18일
- 클래스 C-F : 2012년 03월 30일

벤치마크 KOSPI 35% + 매경BP종합(국공채) 40% + 매경BP종합(A-이상회사채2~3년) 20% + KAP Call 5%

신탁업자 국민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 이전	3영업일	4영업일
17시 경과후	4영업일	5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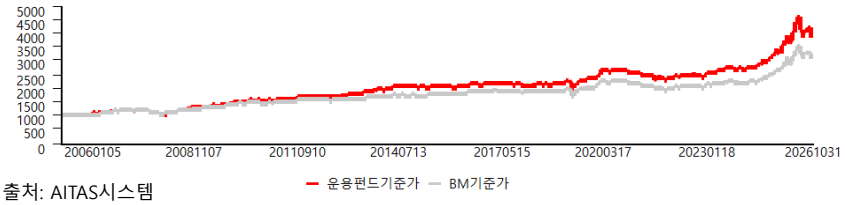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4등급(보통위험)

1	2	3	**4**	5	6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설정이후
운용펀드	-5.26%	-3.07%	-3.42%	17.19%	44.88%	63.75%	54.14%	288.74%
클래스 C	-5.33%	-3.26%	-3.80%	16.27%	42.63%	59.94%	48.14%	131.08%
클래스 C-E	-5.31%	-3.20%	-3.67%	16.58%	43.38%	61.20%	50.12%	76.48%
클래스 C-F	-5.29%	-3.14%	-3.56%	16.85%	44.05%	62.33%	51.90%	132.69%
벤치마크	-4.88%	-3.30%	-1.61%	16.57%	41.39%	55.33%	42.96%	208.29%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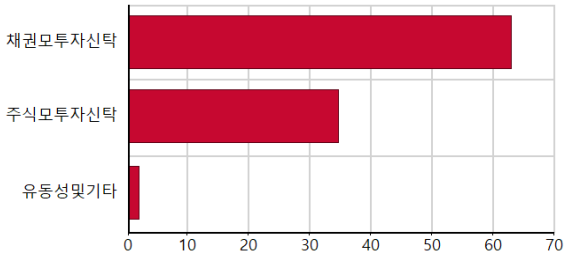


출처: AITAS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6년 10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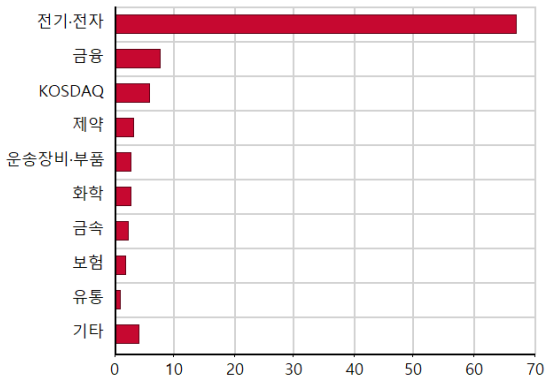
<전체>

순위	자산명	비중(%)
1	채권모투자신탁	63.2
2	주식모투자신탁	34.9
3	유동성및기타	1.9



<주식 업종별> 주식모투자신탁 편입 비중

순위	업종명	비중(%)
1	전기·전자	67.2
2	금융	7.8
3	KOSDAQ	6.0
4	제약	3.3
5	운송장비·부품	2.8
6	화학	2.7
7	금속	2.6
8	보험	1.9
9	유통	1.3
10	기타	4.4



자산별 상위 보유 종목 (2026년 10월말 기준)

채권TOP5	비중(%)
국고채권03500-2906(26-5)	16.0
삼성증권25-2	8.0
국고채권04250-3606(26-6)	5.1
산금26신이0106-0721-1	5.0
다올투자증권 20260915-91-7(단)	4.9

주식TOP5	업종	비중(%)
삼성전자	전기·전자	29.8
SK하이닉스	전기·전자	23.5
SK스퀘어	금융	3.4
삼성전기	전기·전자	3.2
삼성SDI	전기·전자	2.5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KARDIAN
카 디 안 자 산 운 용

판매회사
내부직원용

카디안 퇴직연금 업종일등 4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026년 10월말 기준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C : 총 연 0.8% (판매 0.535%)
- 클래스 C-E : 총 연 0.533% (판매 0.268%)
- 클래스 C-F : 총 연 0.295% (판매 0.03%)

(공통사항)

운용 0.23%, 신탁 0.02%, 사무관리 0.015%

선취수수료

없음

후취수수료

- 클래스 S : 환매금액의 0.15% 이내(3년 미만 환매 시)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10월 KOSPI는 전월 대비 16.19% 하락한 5,730.74pt, KOSDAQ은 15.3% 하락한 724.38pt로 마감했습니다. 중국 CXMT의 메모리 추격과 공급 확대에 따른 경쟁 우려, 미국 9월 소비자물가의 예상치 상회, 코어위브 채권 급락에 따른 AI 자금 조달 우려가 겹치며 두 시장 모두 매매 일시정지 장치(매도 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가가 발동되었습니다. 월 후반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 종료로 매수세 공백이 생기며 10월 26일 5,469pt로 저점을 찍었으나, 호실적과 신규 자사주 매입 발표로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형 기술기업의 현금흐름 악화와 AI 투자 부담이 다시 부각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 호조에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KOSDAQ은 이런 우려와 미국 금리 부담이 성장주 전반으로 번지며 반도체 소부장, 로봇, 바이오, 2차 전지 등 시가총액 상위 업종 중심으로 낙폭이 커졌습니다. 업종별로는 의약, 음식료, 보험이 강세, 조선, 기계, 정유가 약세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5.30원(전월 대비 -1.70%), WTI 유가는 104.12달러(+6.46%)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 19.5조원을 순매도한 반면 기관과 개인은 각각 4.8조원, 4.1조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조선, 인터넷, 반도체 등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나 전자부품, KOSDAQ150 IT, 화장품 업종이 성과에 부정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종목별로는 SK스퀘어, SK하이닉스, 한화오션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이수페타시스, 삼아알미늄, LIG넥스원 등이 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조선, 건설 및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AI 반도체 핵심 공급망, 2차전지, 바이오 대형주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AI 반도체 핵심 공급망의 경우 AI 투자 확대 수혜가 예상되고 3분기 실적도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압축하였습니다. 2차 전지의 경우에는 ESS 수주 증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하였고 바이오 대형주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선의 경우 원화 강세와 조업 일수 감소로 인해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건설업종은 원전 발주 지연 및 고금리에 따른 부정적인 매크로 환경을 감안하여 비중을 축소하였습니다.

10월 채권시장은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과 국제유가 상승, 프랑스 재정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국고채 발행 축소와 외국인 국채선물 매수세, 증시 조정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가 맞물리며 전반적인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월 초에는 정부의 채권시장 안정 의지와 국고채 발행 축소에 따른 공급 부담 완화로 금리가 하락한 가운데 외국인 국채선물 매수세가 이어지며 강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월 중순에는 미국 소비자물가가 예상을 상회하며 추가 긴축 우려가 높아졌으나, 증시 조정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와 외국인 매수세가 이를 상쇄하면서 금리는 재차 하락하였습니다. 이후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된 가운데 AI 투자 관련 우려에 따른 주가 약세와 미국채 금리 하락이 국내 채권시장 강세를 뒷받침하였습니다. 월 후반에는 국내 3분기 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소폭 상회했음에도 외국인 국채선물 매수로 금리 하락세가 이어졌으나, 증시 급등과 외국인 선물 매도 전환으로 금리가 일시 반등하였습니다. 이후 FOMC의 기준금리 동결과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을 소화하며 금리는 재차 하락하였고, 결국 국고채 3년 금리는 전월 대비 30.5bp 하락한 3.71%, 10년 금리는 41.0bp 하락한 4.01%로 마감하였습니다.
전월 말 대비 금리가 큰 폭 하락하는 가운데 펀드 듀레이션을 벤치마크 대비 -0.06년 ~ +0.07년 수준으로 운용하였고, 이는 채권모투자신탁 성과에 중립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커브의 경우 전월 말 대비 금리 하락폭이 컸던 10년 이상 구간을 벤치마크 대비 축소 운용 지속한 점이 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섹터는 전월 말 대비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된 여전채 벤치마크 대비 확대 운용 지속한 점이 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11월 KOSPI는 10월 급락에 따른 과매도 인식과 AI 투자 수익성 우려 완화로 점진적인 회복을 기대합니다. 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지났을 가능성과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덜 적극적인 태도로 돌아선 점도 금리 상승 압력을 낮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미국과 이란 간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수 있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등락이 클 수 있습니다. 10월 FOMC는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12월 인상에 대비하고 있어 증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중간선거 이후 불확실성 해소로 증시가 올랐던 과거 패턴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지만, 최근 불안의 핵심은 정치보다 AI 투자에 대한 의구심이어서 효과는 제한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수의 추가 하락을 걱정하기보다는, 많이 떨어진 AI 관련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지수는 탐욕보다는 비관이 팽배해 있어 지금의 주가 조정은 좋은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시장의 판단 기준으로는 미국 10년물 금리 5% 하회, Brent 유가 100달러 하회를 본격적인 Risk-on 신호로 판단하며, 미국 10년물 금리 5.3% 상회, Brent 유가 105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재차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업종 측면에서는 반도체와 AI 밸류체인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할 계획입니다. 10월까지 이어진 반도체 수출 증가와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를 감안하면 국내 기업의 이익 모멘텀은 여전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가장 강할 것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산업정책 변화 가능성과 미국 전력 부족 문제를 감안할 때 ESS·전력기기·신재생에너지 밸류체인에 대한 관심을 높일 계획입니다.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는 특정 정당의 승패 자체보다 선거 이후 행정부와 의회의 권력구조, 재정지출·세액공제·에너지·AI 인프라 관련 정책의 실행 가능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증설로 미국의 전력 공급 부족 문제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송배전망, 변압기, 전력기기, ESS 및 일부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정치적 결과와 무관하게 중장기적인 투자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정책 불확실성으로 월초 관련 종목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미국 매출 비중과 수주잔고가 높은 전력기기 및 ESS 기업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비중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11월 중순 이후 미국 물가가 완만하게 둔화되고 미국 10년물 금리가 안정될 경우 성장주의 상대강도가 점차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반도체뿐 아니라 바이오·헬스케어·화장품 등 장기 성장성이 높은 업종으로 수급이 확산될 수 있어 해당 업종에 대한 비중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0월말부터 11월까지 본격적인 3분기 실적 발표 구간에 진입함에 따라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및 종목을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하여 추가적인 알파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11월말에 예정되어 있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 한국의 금리가 상승 추세에 위치해 있으므로 주가 조정 시 은행 및 보험에 대한 비중을 재차 상향하겠습니다.

11월 금통위에서는 견조한 성장세와 수요 측 물가 압력, 성장·물가 전망의 상향 가능성을 감안해 기준금리를 25bp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0월 금통위의 만장일치 동결은 긴축 종료보다는 속도 조절의 성격으로 판단하며, 시장의 관심은 최종금리 수준과 추가 인상 횟수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최근 금리 하락으로 가격 부담이 높아진 만큼 물가 상방 위험이 재차 부각될 경우 금리가 반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10월 FOMC 동결과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발언이 긴축 우려를 일부 완화했으나,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국제유가 상승은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을 높이며 국내 금리의 추가 하락을 제한할 전망입니다. 반면 AI 투자 관련 우려와 증시 조정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는 금리 상승 압력을 일부 완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내 수급 측면에서는 11월 국고채 경쟁입찰 규모가 전월과 동일한 12조원으로 결정됐으나, 5년 이상 발행 증가와 바이백 축소로 추가적인 수급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공급 축소 기대가 시장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된 가운데 외국인 선물 매수세가 약화될 경우 금리 되돌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국고채 3년 3.60~3.90%, 국고채 10년 3.90~4.20%의 금리 레인지를 전망합니다. 펀드 듀레이션은 11월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도 불구, 선반영된 금리 레벨, 국내 수급 부담 완화 지속, 중동 불확실성 완화,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지속 전망 하에 벤치마크 대비 소폭 확대 된 현 수준 유지 후 박스권 상하단 접근시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크레딧 시장은 추가 금리 인상 경계와 연말 기관투자자의 자금 집행 축소로 완만한 스프레드 확대 압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최근 스프레드 확대로 높아진 상대적 금리 매력과 캐리 수요가 약세를 완충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통위 이후 추가 인상 경로가 구체화되고 시장금리 변동성이 완화될 경우 투자심리도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공사채와 은행채의 공급 부담이 9~10월보다 완화될 여지가 있으나, 실제 발행 규모와 시장 소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채는 주요 공적채권의 4분기 발행계획 축소가 수급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은행채는 선제 조달로 추가 발행 부담이 완화되겠으나 연말 수신 확보와 만기도래 물량의 차환 수요는 부담 요인입니다. 회사채는 연말 발행 감소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며, 여전채는 지속적인 조달 수요가 부담이나 SK하이닉스 위탁운용 자금의 추가 집행이 일부 종목과 만기의 투자수요를 뒷받침할 전망입니다. 이에 11월 크레딧 시장은 완만한 약세 흐름과 섹터·종목별 차별화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특수/국고 3Y Spread 30~40bp, 은행/국고 3Y Spread 35~45bp, 여전AA-/국고 3Y Spread 70~80bp, 회사AA-/국고 3Y Spread 65~75bp를 전망합니다. 따라서 채권모투자신탁은 상대적으로 절대금리 메릿과 롤링 효과가 좋은 2년 이하 구간 위주 크레딧 벤치마크 대비 확대 포지션 유지하여 펀드 YTM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